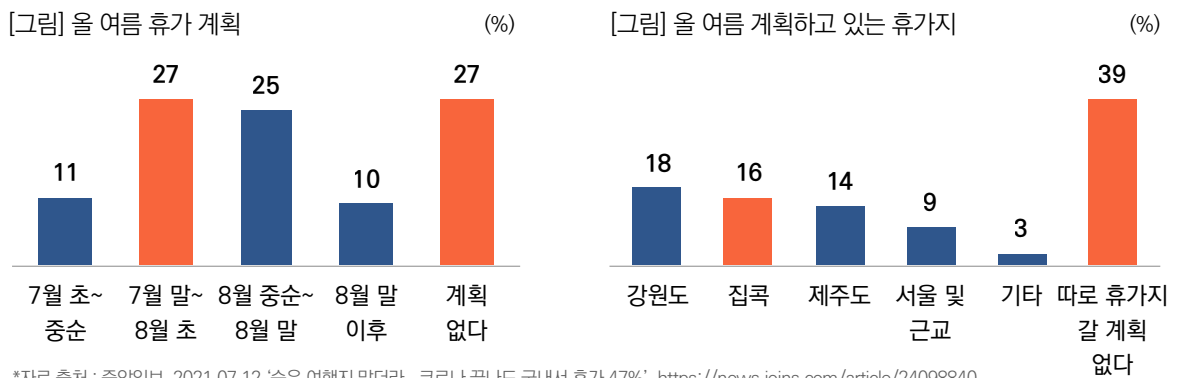


1. 2021 여름 휴가 계획



올 여름 휴가 계획, '집콕 + 따로 휴가지에 갈 계획 없다' 5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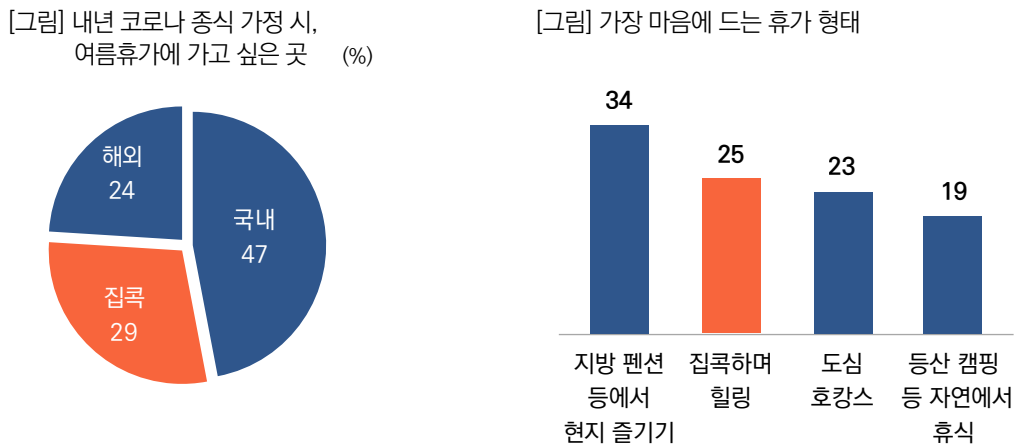
- 작년에 이어 올 해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휴가를 맞아야 하는 상황인데,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올 여름 휴가 시기를 물어 본 결과, '7월 말~8월 초'가 27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'8월 중순' 25%, '7월초~중순' 11% 등의 순이었다.
- 계획하는 휴가지를 묻는 질문에는 '강원도' 18%, '제주도' 14% 등으로 강원도가 가장 높았는데, '따로 휴가지에 갈 계획이 없다' 39%, '집콕' 16% 등 휴가 여행을 떠나지 않겠다는 응답이 무려 55%나 돼, 그만큼 코로나19가 국민 휴가/여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풀이된다.



*자료 출처: 중앙일보, 2021.07.12. '숨은 여행지 많더라...코로나 끝나도 국내서 휴가 47%', <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98840> (조사개요: 전국 20~59세 남녀 2020명, 온라인조사)

● 코로나 종식을 가정할 때, 내년 여름휴가 장소, '집콕' 2위!

- 내년 이맘때 코로나가 끝났다고 가정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질문했는데, '국내'가 47%로 절반 가까이 응답해 가장 높았다. 다음으로 '집콕' 29%, '무조건 해외' 24%로 응답했다. '집콕'이 두 번째로 높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.
- 가장 마음에 드는 휴가 형태에서도 '집콕하며 힐링' 25%로 두 번째로 높아,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집콕이 익숙해진 결과 집에서 다양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



*자료 출처: 중앙일보, 2021.07.12. '숨은 여행지 많더라...코로나 끝나도 국내서 휴가 47%', <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98840> (조사개요: 전국 20~59세 남녀 2020명, 온라인조사)